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 (1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2.(목) 13:30~15:3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13.(월) 13:30~18:00, 이음센터 커뮤니티룸2

<1차 서류 심의>

본 사업은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가 동시대 유의미한 기획 소재를 개발하여 공동 연구하고 기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심의의 공정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수검토제도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기획안을 사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했으며, 전수검토의 견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심층 토의를 거쳐, 5단계 평가 채점 후 점수 순대로 전체 19명(행정결격사유 해당자 2명 제외)의 지원자 가운데 13명을 인터뷰 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심의에서는 기획자로서의 문제의식, 충실한 조사 연구 실행 계획안, 합리적인 예산 설계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기획자가 기획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연구생 성격으로 기획자를 선정하고, 심층연구, 상호교류의 과정을 거쳐, 중간발표, 심화연구, 최종발표에 이르는 단계적 활동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세분화되어 있는 연구과정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체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자를 선택하고자 했다. 최종 결과 발표를 위한 사전 조사 계획의 당위성과 타당성, 예산 설계의 합리성, 연구계획과 최종프로젝트 사이의 설득력이 높은 기획안에 주목하면서, 지원자의 자기주도적 성장 가능성과 수월성 충족 여부도 고려했다.

<2차 PT/인터뷰 심의 및 총평>

공정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의 점수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1차 심의를 통과한 13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원자들의 기획안은 전반적으로 1. 기획자 정체성 및 전문성 확립, 2. 기획의 역할과 한계, 3. 청년예술가의 생존 문제, 4. 관객 개발, 5. 네트워킹, 6. 새로운 플랫폼 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고, 특히 7. 대중성이 부족한 장르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동의 가능한 이슈를 논점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이었으나,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의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문화예술기획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제와 차별화되는 메시지나 방법론이 부족했으며, 최종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기획 역시 찾기 어려웠다.

본 사업의 목적은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의 기획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생들이 조사연구와

협업, 워크숍, 커뮤니티 활동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연구생들과의 네트워킹을 공고히 하는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나 지원자들의 제안은 문화예술생태계 내에서 차세대 기획자로서의 고민과 비전에 대한 방향성을 담기보다는, 차별점을 읽어내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기획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예술기획 일반에 열려 있는 사업으로, 특히 타 예술 장르 선정자들 간의 교류에 관심 있고, 공동 연구 및 협업에 관심 있는 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협업 가능성을 고려한 기획, 실험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안하는 기획도 드물었다. 열린 방법론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만 피력할 뿐, 실제 기획 내용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관객 개발 및 관객과의 교류에 대한 기획자로서의 고민 역시 지원자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으나,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한 조사 연구 계획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원 내용 전반에서 차세대 기획자다운 고민이 담긴 제안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유의미한 과정을 동행하며 기획자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십분 살려, 차세대 기획자로서 시도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획을 펼쳐볼 것을 제안한다.

기획서 내용의 성실성 여부와는 별개로, 1. 기획의 성격이 기획공모사업보다는 창작활동을 돕는 창작공모사업에 적합한 경우, 2. 단체를 대표하는 지원자가 단체의 컨텐츠 기획이나,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3. 연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원자가 개인 기획의 형식을 띄고 연구 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완벽한 결격사유는 아닐지라도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본 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기획안의 경우,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배제하였으나, 기획의 목적이 당대성을 확보하고, 수월성 충족 여부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 연구 단계 연구생으로 선정했다. 본 사업은 조사연구 단계 이후, 중간발표, 심화연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위에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획자들은 사업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과정을 발전시켜나가기 바란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aPD)분야 심의위원 일동